

## 수 학 보 고 서 (1차)

소 속 : 상경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전공

성 명 : 신은혜 학 번 : 20613116 핸드폰 : 1-626-636-0849

파견연도 : 2010. 01 ~ 2010. 12

교류대학 : California State University, Fresno

### 1. 파견 학교(위치 및 교통편) 소개

제가 파견 온 CSU, Fresno는 California주 중간지점에 있는 도시인 Fresno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서부지역의 큰 도시들로 여행 하기 쉽습니다. 자동차를 이용하면 샌프란시스코까지 3시간, 로스앤젤레스까지 3시간 정도 걸리고, 라스베가스까지는 6시간 걸립니다.

날씨는 한국에 비하여 따뜻한 편입니다. 처음 1월에 왔을 때는 얇은 코트 혹은 후드티만 입어도 될 정도였고 4월까지의 봄, 가을 날씨처럼 따뜻합니다. 그러나 4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더워지며, 7월에는 온도가 39도까지 올라갑니다. 비도 잘 오지 않는 편이나, 이번 년도에는 한 달에 2~3번씩 비가 내렸습니다.

학교 앞에는 음식점이 별로 없고, 대신 학교 안에 샌드위치 가게, 커피 가게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버스를 타고 3~5분 정도 가면 월마트와 쇼핑몰에 갈 수 있습니다. 버스비용은 편도로 \$1씩이며, 환승하고 싶을 때는 환승권을 받으면 여러 번 환승이 가능합니다. 쇼핑몰 근처에는 한인식당과 한인마트도 있습니다.

### 2. 기숙사 및 도서관 등 학교 부대시설 소개

기숙사는 Community Hall과 Suite Hall로 나뉩니다. Community Hall은 2인 1실이며 화장실, 세면대는 같은 층 사람들과 같이 공유합니다. Suite Hall은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, 최대 6명과 함께 살고, 방 하나를 2명이 쓰고, 거실과 화장실은 같은 같이 사는 사람들과 공유합니다. 거실에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, 서랍 등이 있습니다. 빨래는 각층에 세탁실이 있는데, 카드를 사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비용은 한번 세탁할 때 \$1.25, 드라이할 때 \$1.50입니다.

기숙사 내에서 인터넷을 하려면 따로 선을 사거나,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친구들과 무선랜을 공유해야 합니다. 학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Wi-Fi가 있지만, 잡히는 방이 있고, 잡히지 않는 방도 있기 때문입니다.

기숙사비는 방 유형마다 틀리며, 보통 한 학기에 \$3,500 ~ \$4,000입니다. 납부시기는 기숙사 입주 후 보통 한달 까지며, 한번에 모두 납부해도 되고, 매 달 납부하해도 됩니다. 보증금은 총 합쳐서 \$150이고, 이는 최종적으로 기숙사를 나갈 때 다시 돌려줍니다.

학교 안에 커다란 헬스센터가 있어 무료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. 보통 한국에서의 웬만한 헬스장보다 크고, 라켓볼과 배드민턴, 농구 등도 할 수 있습니다. 또 수영장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 도서관은 주중에는 7시부터 11시까지며, 토요일에는 1시부터 5시까지, 일요일에는 2시부터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4시간 오픈 되어 있는 곳이 없어 밤늦게 공부할 곳이 없어 많이 불편했습니다.

### 3. 교육과정

여기서는 반드시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하며, 9학점까지는 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1과목은 교양과목으로 아무것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면, 일본어 수업 혹은 골프 같은 스포츠 과목도 교수의 허가를 받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.

이곳은 Final Exam을 빼고는 정해진 시험기간이 없어 과목마다 시험일이 틀립니다. 보통은 한 학기에 3번씩이며, 과제가 1~2개씩 주어집니다. 인상 깊었던 것은 과제를 제출하면 교수들이 일일이 채점하고, 코멘트를 남긴 뒤, 다시 학생들에게 나눠준다는 점 입니다. 시험은 OMR카드로 채점이 되는데, 채점 후 OMR카드도 확인을 위해 다시 학생들에게 되돌려 줍니다.

### 4. 수업내용

수강신청 한 뒤 Black Board에서 수업목표와 각 시간마다 무엇을 배우는지를 설명해 놓은 syllabu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수업내용은 이 syllabus에 표기된 대로 진행이 되며, 시험 일정, 휴강 등에 대한 내용도 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대부분의 수업을 금융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여서인지, 금융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.

5. 건의사항 (개선되어야 할 부분)

앞에서 말했듯이 불편했던 점은, 도서관이 24시간 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또 하나는, 기숙사비가 비싸다는 점입니다. 여기 와서 생활을 해보니, 기숙사보다 밖에서 사는 것이 거의 절반 이상의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
6. 국제처에 남기고 싶은 말

한 학기가 너무 빨리 갔다고 느낄 만큼 제게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고, 남은 한학기도 더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